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 지음
여시아문 | 1만원

세속 떠난 그들, 산빛에 물든다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온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신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먹여 살렸다는 이제까지의 믿음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이 참 나를 가리고 있었다. 본래의 나에 눈뜨고 싶다. 최초의 나를 만나고 싶다.’

구도승들의 솔직 담백한 안팎 살림살이

세속의 번잡함에 물들기 싫어 산으로 간 구도승들의 내적 외적 살림살이에 대한 궁금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다는 ‘부처 될 씨앗’ 이권만 세속에 묻혀 살다 보면 요원해지기 쉽고 깨달음의 소식은 산사에서 정진을 하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산에서 산다고 산빛으로 물들기는 쉽지 않다. 잿빛 승복으로 몸을 감싼다고 뛰는 심장까지 감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도승들의 머릿속, 가슴속 사정은, 어떠한 저자거리보다도 복잡다단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산빛 물든 사람’ 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과 정진’의 세계에 젖어들곤 하는 것은, 그리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뭘까? 1985년 송광사로 입산 출가하여 승랍 21년째인 정과(正果) 스님이 <산빛 물든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을 일삼으면서도, 허투도 면출 사이 없이 먹고 입고 자고 씻고 배설하는 몸뚱이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뇌 현장을 솔직 담백하게 공개했다. 스님은 다섯 해가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만 주지 소임을 맡았을 뿐, 봉양사, 해인사, 칠불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 수행에 맛을 들여 온 문자 그대로의 수행



승이다. 스님은 산에서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말라죽는 나무 물어뜯는 것처럼 진척이 없고 힘만 들다가도, 어느 순간 화두가 밝아지고 순조로워져서 언어를 넘어서는 법열의 경지로 데려다주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연 그대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도승들의 안팎 살림살이에 대해 솔직히 토로한다.

‘수많은 망상이 파도처럼 높아 지다가 간 곳 없이 잦아든 뒤 화두 하나만 덩그러니 남을 때가 있다. 마을을 지나다 한낮의 닭 우는 소리에 깨쳤다는니, 냇물을 건너 다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한소식 했다는니, 한 대 일어났는 그 순간 홀연히 활연 대오 했다는 이야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그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내게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스님은 숨김없이 복잡한 내면을 털어 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진 도중에 자신에게 속삭이는 명상의 말들로 소화되고 승화되어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공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님의 메시지는 힘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도 마음이 한 일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다. 일본 일초도 나와 떠나 있지 않으면서, 나도 아니면서, 나를 이끌 어온 마음. 밝혀낼 일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조사선 핵심과 수행법

송말원초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원효 선사가 1294년에 지은 설법모음집 <선요>. <선요>는 실참실오에 의한 간화선의 요체이며, 선문답자의 정안을 열어주는 지침서이다.

고봉 스님은 이 책에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하여 참구 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다.



선요
고봉원효 지음
전재강 역주
윤주사 | 1만원

스님은 화두를 참구해서 일념이 되고 은산철벽을 투과하여 확철대오에 이르는 공부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다. 즉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 화두참구에 필요한 대신심(大信心)·대의정(大疑情)·대분지(大憤志)의 세 요소, 일대사(一大事), 화두참구 과정에 만나는 각종 병통, 향상사(向上事)에 대한 가르침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안진호 스님이 1936년 현토주해한 이후 기본교재로 채택된 <선요>의 오류를 일부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선의 종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안진호 스님의 잘못된 해석 13군데를 바로잡고 있다.

예를 들면 안진호 스님이 ‘노력해도 공이 없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니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할을 한번 하는 것이 도리어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고 번역한 부분의 경우 ‘노력해도 공이 없다는 것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산속에서 산을 찾기 때문이다’의 오기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시 선의 종지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 전통 선인 조사선의 핵심과 수행방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행으로서의 선과 학문으로서의 선화를 구분하여, 이 책에서는 논리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하는 선화의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체대를 위해 되도록 현대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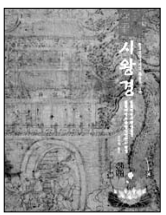
■ 큰 경안의 시절(마우니 사두 지음, 대성 엮음, 탐구사)= 기불림 신자로 신지학, 카발라 등 신비술에 조예가 깊었던 저자인 마우니 사두(멜버른 명상그룹 지도자)가 1945년 라마나 마하르쉬의 가르침을 접한다. 1949년 5월 라마나스라암으로 마하르쉬를 찾아가 제자가 되어 5개월간 그 곁에 머무르면서 진야를 체험하고 나날이 삼매를 심화시켜 나간 체험담을 간결한 문체로 기록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신(新)유식학 / 밀양, 고목, 1만2000원
- 목조선 입문 / 석란, 김호귀, 1만원
- 일연을 논는다 / 현암사, 고운, 1만5000원
-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 오후에, 민공스님, 1만5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시왕경’ 송광사 판본 번역



시왕경
김두재 지음
성문 | 1만원

살아서도 죽어서도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죽음이 심판의 짧고 긴 여정 속에 망자가 고통으로 토해내는 자기 생활과 대면할 수 있는 <시왕경(十王經)>. ‘시왕’은 육계(欲界)의 6천(六天)과 4천천(四禪天)에서 사자에 대한 죄의 경중을 다루는 10명의 왕을 일컫는다. <시왕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偽經)이지만, 세속적인 권선징악의 요소가 짙다. 이 책 <시왕경>에는 우리나라의 옛 <불설예수시왕생철경> 목판 판본들 가운데 1618년 송광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경문을 번역했으며, 변상도를 그대로 실었다. 또 함께 실린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의 경우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한 점과 조선 말(1878년)에 제작된 시왕도 초본 10점이 수록돼 있다.



“214자의 한자 부수만 알면 쉽게 한문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문을 독파했으면 합니다.” 45년간 한문을 연구해온 김광식 명광문화원장(64)이 과학적인 교육 방법으로 한문공부에 흥미를 부여하는 한자지습서 <漢文書堂(한문서당)>을 발간했다. <한문서당>에는 214자의 부수부터 2300자의 한자, 650여개의 고사성어, 행정용어, 속담 등 총 1만여 문장이 수록돼 있다. 특히 고사성어고 사성어풀이에서는 음훈을 비롯해

“부수 214자만 알면 한문 쉬워요”

interview

한자지습서 ‘한문서당’ 낸 김광식씨

동의어, 해설, 출전, 어원까지 자세하게 풀이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어른들까지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한문서당>에는 지금까지 이뤄진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한문학습법을 제시했다”며 “기존의 음과 훈을 암기하는 식으로는 학습의 성취도를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전수하는 ‘한자 따라잡기’ 비법은 부수의 뜻을 풀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자의 모양과 음을 자세한 해설로 풀이해 부수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눈에 속 들어오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齒(치·이)는 입안(口)에 고정(止)되어 있는 잇니(人人)와 아

랫니(人人)의 모양을 나타낸다’란 해설처럼 부수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줬다. 덕분에 전혀 몰랐던 한자라도 그 뜻을 생각해 보는 안목이 길러져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필순에 따라 한자를 익히며 쓸 수 있게 했으며, 부수와 총획수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한자의 어원을 따라가며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한문을 배울 수 있다. 김광식 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45년간 한자를 연구해왔으며, 전통민속기능(민요·민속극)을 보유하

고 있는 전통예술인이기도 하다. 또 청주불교방송에서 ‘김광식의 불교 이야기’를 2년간 진행했으며, 청주한문불교교양대학을 5년간 운영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충북지회장, 법왕불교대학 교수, 세계자유연맹 특별 명예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개혁통일총연합 부총재이며, 명광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02)720-0856

김원우 기자



漢文書堂(한문서당) 1~6권
김광식 지음 | 명광문화원 | 9만원

화제의 신간 21세기 다시보는 풍수지리

智山風水地理要訣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기 형기 현공 양택 산사주학 비법
신개념의 풍수가 한눈에 쏙쏙!

이것이 바로 기둥이요 뿌리라!!!
신 풍수지리 완결편 지침서 길잡이!!!

- 주역팔괘 방위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기학
- 좌향과 해운에 따라 후손에게 미치는 산사주 비법
- 해운과 좌향 변화에 따라 변하는 현공학
- 지형지세와 옹맥 변화에 따른 형기학
- 간산(산소 감정) 요령
- 각종 택일
- 정의절차와 상례축문

金根夏 지음 / 신국판/양장본 / 736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x6배판/이선중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호,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만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제를 사고 주제를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250,000원

송월스님의 개증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쁨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마라.

신국판 / 312쪽 / 9,500원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 은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장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수만 적어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계몽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하려, 그런 그였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집어든 선생은 사람들에게 집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